



교회의 정체성은 바른 성경관으로부터

종교다원주의 타파, 성경대로의 신앙 전파 다짐
(사)예장연 제17회 정총 대표회장에 이광용 목사



설교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의장
(사)예장연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명감 이상으로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 보며 그 행복감이 충만하여 훌륭히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회원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연합회와 교단과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모든 일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섬기는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서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특강으로 한국장로교사학회장 김남식 박사가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와 전망'이란 주제로 장로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단했다.

계속해서 고분 예영수 목사의 격려사, 고분 육옥수 목사와 고분 김기형 목사의 축사,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한국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사회 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교회 이단과 WCC패를 위해', '(사)예장연 정체성과 성령충만을 위해' 차득환 목사, 조요한 목사, 고종권 목사, 임은선 목사, 서재복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창로동 어린이집 교사일동의 한금찬양, 회계 오선미 목사의 한글기도, 고분 송현 목사의 축도 순으로 개회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기운에 마쳤다.

기념촬영 후 곧바로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주재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대표회장에 이광용 목사를 재선임하는 등 신임위원을 선출했다. 신 임원진에 의해 새 회기년도에 이루어갈 사업계획안은 신학위원회 주관 학술세미나, 예장연 특별발전협 구성, 부흥사교육, 예장연 대학원 대학교 설립추진 등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분열과 반목의 부정적 인세력들을 물리치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전하고 "한국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설과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혼합주의 등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장연의 정신을 한국교회 전체로 퍼뜨려 반드시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분 김원식 목사, 육옥수 목사, 김기형 목사, 예영수 목사, 송현 목사, 이원일 목사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 이강의 목사 외 5인 지분위원 이태주 목사, 조요한 목사 외 9인 지도위원 고종권 목사, 김용현 목사 외 8인 총무 이명승 목사, 김광재 목사 외 5인 서기 손대영 목사 회계 오선미 목사 감사 김태지 목사, 정태래 목사



'가져야 할 두려움과 물리쳐야 할 두려움'



조용목 목사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

두려움에는 유익한 두려움과 해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쁘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쁘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만 믿고 심판에 관한 말씀은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실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실재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시름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이며, "슬피 울며 아를 가는 곳"이며 영원히 고통 받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로운 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공회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지만 아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으며,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을 잘못 택하여 우상숭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됩니다. 심측하는 성도들

바로잡아 주면서 또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에 선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대적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직면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쇠퇴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인생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대적을 다 세워놓으셨으며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대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공연한 두려움입니다.

공연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막중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은 공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전염시켰으며, 그 결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와진리교회)

2015년도 타 교단 출신 교역자 연수교육

교단의 신조와 역사, 성령론 등 전수

교단 2015년도 타 교단 출신교역자 연수교육이 지난 16일(월)과 23일(월) 양일간 총회본부에서 열려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교역자를 대상으로 교단의 주요신조와 교육과정, 목회방법 등이 전수되었다.

이번 연수교육과정에는 교단신조, 교단헌법, 성령론, 교단역사, 구원론, 교회론 등이 강의되었다.

강사진으로는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원내사진)를 비롯 증경총회장 김용택 목사, 한평위원장 한승수 목사,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 총회 신학교 이경진 교수 등 교단 중진 목회자와 교단 총회신학원 교수진이 교단의 신조와 역사, 성령론, 총회행정 등의 주요내용을 전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전 교육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렀으며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가진 수료식에서 수료증서를 일일이 나누어 주며 교단가입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타교단 출신 교역자 연수교육 및 편목고시 실시

1. 등록현금 구분

	연수와 편목대상자	편목대상자
등록현금	50만원	10만원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 등록마감 : 2015. 11. 9(월) 17:00

3. 연수와 편목대상자 일정

11월 16일(월)	11월 23일(월)
11:00~11:50 교단신조	11:00~11:50 교단역사
12:00~12:50 점심식사(각자 해결)	12:00~12:50 점심식사(각자 해결)
13:00~13:50 교단헌법	13:00~13:50 구원론
14:00~14:50 성령론 I	14:00~14:20 총회행정
15:00~16:00 성령론 II	14:30~15:30 시험

4. 편목 대상자 일정

- 1) 집합일시 : 2015. 11. 23(월) 13:00
- 2) 시험일시 : 2015. 11. 23(월) 14:30
- 3) 장 소 : 총회본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 등 용 / 총 무 목사 김 병 목

문 의 : 02)2675-5181-3

“차별금지법안, 건강한 가족질서 해쳐”

차별금지법안 대책 기독교시민연대 포럼 개최



차별금지법대책기독교시민연대(대표 임성택)가 주최하고 강서구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박유선 목사)가 주관한포럼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과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장배 목사(영광교회)의 사회로 노경욱 목사(산성교회)의 기도, 소강석 목사(사예덴교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본부장)의 설교, 특별기도 박유선 목사(대은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평 교수(부산대), 이용희 교수(가천대)가 발표했다. 먼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태희 변호사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족질서’를 뒤엎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결혼 문제의 본질은 ‘행동권’에 있지 않다. 그것은 ‘결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헌재와 대법원은 결혼을 ‘남 1녀 1남 1녀 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결혼의 핵심적 3가지 요소, 즉 성별과 수(數)의 구분,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결합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 2012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 “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 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교연 4차 회기 마지막 실행위 개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 심의해 총회로 올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13일(금) 한국기독교연합회과 중앙당에서 제4-5차 임원회와 4-2차 실행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실행위에서 한교연은 제6회기 결산과 제6회기 예산,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성회)를 새 회원교단으로 삼고, 총회에 인준을 상정했다.

실행위에 앞서 진행된 임원회는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병희 대표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임원회는 11억9500만원의 제4회기 결산을 받는 한편 9억3800만원의 예산안과 사

회와 신년 사랑의연탄나눔기 △2월 설명절 맞이 노숙인 사랑의밥퍼행사 △3월 임역원 리더십워크숍 △4월 부활절 연합예배, 목회자탁구대회 △5월 가정의 달 미혼모 생활시설 지원행사, 장애우와 함께하는 나눔행사 △6월 목회자 축구대회 △7월 백두산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 및 포럼 △8월 광복 71주년 순교자 유가족돕기, 몽골게르교회 건축 헌당식 △9월 한가위 군정가족 위로회 △10월 다문화가정 사랑의 잔치 및 자녀장학금 지급 △11월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누기 행사 △12월 성탄절 탈북민 초청 위로행사 등 1년 동안 사회를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다.

한편 제6회 총회는 오는 12월11일 오후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5회기 대표회장 후보자는 16~17일 한교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영호 목사)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실사를 거쳐 11월 27일 11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후보 정책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될 대표회장은 “나”군에서 추천을 받게 된다.

한장총, 대표회장 후보에 백남선 목사 단독등록

상임회장 후보에 채영남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만석 목사)는 제33회기 대표회장 후보 백남선 목사(합동 직전총회장)와 상임회장 후보 채영남 목사(현 통합총회장)의 후보자 접수 등록을 받은 후에 32-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끝내고 회원교단 총대들에게 후보자 정책소견을 포함한 서신을 통하여 공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유만석牧사는 한국장로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 때에 비중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표회장 후보, 상임회장 후보로 등록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전하고 이번 때에 한국장로교회가 더욱 연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후보자 접수를 위하여 방문한 대표회장 후보자 백남선 목사는 한국기독교의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



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하였다. 그는 제출한 정책소견서에서 한 장총 제33대 대표회장이 되면 2017년 종교개혁500주년을 준비하며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한국교회의 역량을 강화시켜 이단사이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 이슬람 확산, 동성애 대책활동 등 대사회적인 일에 장로교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초,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활동에 장로교회가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상임회장 후보자 채영남 목사는 변장배 목사(총회 기획국장)를 통하여 대리 접수하면서 상임회장이 되면 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를 적극 협조하여 장로교회와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는 오는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과 중앙당(3층)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원, 사업계획에 대한 인준을 통하여 제33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송파기독교연합회”

송파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국도 목사)는 지난 17일(화) 안남누영교회에서 농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예배를 드리고 회원 목회자들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백미(20KG), 300포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박정래 목사의 사회, 고분 유한규 목사의 기도, 대표회장 김국도 목사의 설교, 송파구청장의 축사, 고분 이용범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송파구청장 박춘희 권사는 축사에서 송파기독교연합회원들의 각고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물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이 됨을 감사드리며 송파지역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2부 순서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마시이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으며 내외 귀빈들



은 물론 동참한 모든 분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3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미(쌀) 전달식이 있었다. 대표회장 김국도 목사는 평소에도 이웃을 섬기며 송파지역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해 왔다. 이에 구민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공을 인정받아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송파의 자랑스러운 구민상(賞)’을 받은 바도 있다. 이날 대표회장 김국도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길림 받아 이웃의 소망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실천하는 복을 누리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출산 극복 한국교회 전략 심포지엄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주최하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현일)이 주관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전략’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지난 3일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열렸다.

장현일 원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생명나무순교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광식 총장(고신대 학교)의 축사와 최홍준 목사(국제목양지역연구원 원장)의 격려사, 김정철 장로(CTS기독교TV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저출산 및 영유아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저출산 극복의 실질적 사례와 해법, 한국교회 역할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방안(광양대광교회 사례)’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신정 목사(광양대광교회)는 “저출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섬김과 나눔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교회 밖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 수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일 원장은 정책제언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와 가장 시급히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교회의 공공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대국민과 대정부 차원의 공공정책적 협의와 참여를 포함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범교단차원의 ‘출산장려법국민운동’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목회자 자녀 위한 ‘Happy Success’ 토크 콘서트

민치과 민병진 민승기 원장 주최

‘목회자 치과’로 이름난 압구정 민치과 민병진 원장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신사동 민치과에서 목회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한 ‘Happy Success’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Happy Success’ 토크 콘서트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 원인, 즉 서로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소통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공시키느냐는 해답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민병진 원장과 민승기 원장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노하우가 다뤄질 것

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 원장은 4대째 의사 가문으로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치대, 보스턴대학교 치대, 하버드대학교 치대 교정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엘리트 중 에 앨터이다.

그의 딸 민승기 원장 또한 존스홉킨스대학과 뉴욕대 치대를 졸업한 수재로 일찍이 민 원장의 교육방식이 주목받은 바 있다.

목회자들은 항상 사역으로 인해 바쁘기에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해 소통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민 원장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

는 목회자 자녀들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상의 멘토는 많을 수 있지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영적 멘토는 많지 않다.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이 운영하는 압구정 민치과는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8월에는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엄마야, 제가 잘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단행본을 출판해 보급하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1월 26일까지 선착순 50명에 한해 마감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압구정 민치과(02-547-7708~9)에 전화해 등록하면 된다.

평신도 단체들, 동성애 합법화 저지 적극 나서기로

교계평신도단체 회장단, 기구 상설하기로

한국교계-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지난 10일(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동성애 합법화 저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조찬기도회 김정철 회장, 국회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와 한·일기독교의원맹 김영진 대표, 세계심사회운동본부 전용태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표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16개 광역 교육청 단위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각 교단 총회장들과 선교기관 대표, 평신도단체 회장 등을 국외로 초청,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당국에 청원하기로 했다.

김영진 장로는 “차별금지법안은 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 국회에서만큼은 관련 입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며 “다만



국가인권위법 중 일부 조항과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용태 총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단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현안을 보고하고 언급할 것”이라며 “현재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교계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계의 하

나된 여론을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장단들은 앞으로 ‘한국교계-교회평신도5단체협의회’를 상설화해 교계와의 유기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평신도 선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 지원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구세군, 첫 해외 후원자 모임 개최

‘내일을 위한 동행 : 해외 후원자 소모임’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은 지난 6일(금) 구세군중앙회관에서 ‘내일을 위한 동행 : 해외 후원자 소모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의 목적은 기부금 사용내역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해외 후원자들에게 대한 소모임을 통해 후원내역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후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번 모임은 한국구세군의 해외 후원자 및 내일기금 후원자, 그리고 해외 후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구세군의 해외지원 사업국인 캄보디아의 신진군 사관과 캄보디아 학생인 브로군, 몽골의 이중우 사관이 함께 하며 해외 지원 사업들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다.

한국구세군의 김필수 서기장관은 함께 자리를 빛내준 후원자님들의 소중한 사랑에 감사를 표한다며 환영인사를 드렸으며, 홍보대사인 김혁 홍보대사와 박인영

홍보대사가 자리를 함께 하며 후원자들에게 대한 안내와 후원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맡았다.

후원자 소모임의 담당자는 “한국구세군의 첫 번째 후원자 소모임을 가졌다”며, “무엇보다 겨울의 자선냄비로만 구세군의 활동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는 구세군과 함께 우리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 전할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영남알프스 가을산행, 회복과 충전의 시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한명집 목사)는 지난 9일(월) 영남알프스의 일출골과 호박소로 '가을산행'을 다녀왔다.

토요일부터 내린 가을비가 월요일 아침까지 계속되었지만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셔서 오전 9시 30분 금곡구 구서동 이마트 앞에서 각자 차를 나눠 타고 출발, 11시에 경남 밀양시 신내면 호박소에 도착했다.

비가 그치고 좋은 날씨 가운데 드리진 도척예배는 회계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기도,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가 설교했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의 보면서 목회에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 받는 부산지방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하루일정에 관한 광고와 예하성부산신학교 학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마친 부산지방회원들은 준비해 온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영남알프스 일출골 케이블카를 타고 가자산 정상에 올라 단풍



이 절정을 이룬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며 하나님의 예술작품에 감탄했다.

이어 산행을 하며 사진도 찍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등산 후에는 작전정 등역온천에서 온천을 한 다음 저녁을 먹고 임원들이 준비한 선물(참기름)을 나누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야유회, 화합하면 하나님의 큰 뜻 이룰 수 있어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0일(화) 단합 야유회를 가졌다. 강원도 삼척시 소재 환선굴 탐방과 공촌해수욕장에서 용화까지 25km의 해양테일바이크로 체력단련 및 관광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회원들은 행사에 앞서 환선굴 앞 정자에 모여 아와 예배를 드렸다.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인도로 직전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산양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진 목사는 '여호와의 찬양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만물이 주님께 순종으로 찬양하듯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어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1시간여에 걸친 환선굴 탐방으로 동굴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빛어진 각종 유석과 동굴 속에 합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신비 등을 탐방하고 나와서 점심식사 후 정소를 옮겨 삼척시 공촌



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용화까지 이르는 25km의 해양테일바이크로 체력단련 겸한 해안관광을 하였다.

이 구간은 1시간에 걸쳐 바이크를 한차례 구르며 해안을 관광하는 코스로 운동과 즐거

운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지방회 회원들 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우리 지방회가 화합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며 모든 일정을 감사로 마쳤다.

가을소풍, '가장 행복한 지방회 되자' 다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3일 '가을 소풍'을 통해 회원의 단합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회 목회자들은 먼저 '세계대나무축제'의 장소인 담양 죽녹원을 찾아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죽향에 흠뻑 취해 지쳐있던 마음의 힘을 얻었다.

이후 광전산 언덕에 자리한 차집에서 '교단에서 가장 행복한 지방회가 되자'고 마음을 모았다.

이밖에도 맛 집의 명소인 '들꽃 그리고 향기'에서 정성껏 준비한 한방약외로 건강을 챙기는 등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광전산에서 소중한 만추의



추억을 남겼다.

지방회장 김영인 목사는 "참석해주신 회

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푸짐한 간식과 선물을 준비해준 지방회에 감사드리다"고 인사했다.

인천 '자월도' 서 월례회 및 야외단합대회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최철민 목사)는 지난 10월 15일~1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자월도에서 월례회 및 야외 단합대회를 가졌다.

지방회의 단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바쁜 목회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대부도를 출발하여 한 시간여 항해한 끝에 도착한 자월도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으로 회원들을 반기기 맞이하는 듯했다.

회원들은 아름다운 자월도의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숙소 배정과 서둘러 오찬을 마친 후 때 맞춰 물이 빠져 민탕을 드러낸 갯벌로 향하였고 동막과 낙지, 가재 등을 캐며 그동안의 피로를 다 날려 보내고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일부 회원들은 준비해 간 낚시대로 우럭



과 망둥어를 잡으며 모처럼의 망중환을 즐겼다. 저녁에는 준비해간 대하를 구워 먹으며 회원간의 정을 두텁게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지방회장 최철민 목사(순복음초대교회)의 인도로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교단의 안정과 부흥을 위하여 3)지방회의 단합과 소속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후 지방회장의 마무리 기도도 기도회를 마쳤고 이어서 내년도

행사를 위한인전을 토의함으로써 첫째날 일정을 마쳤다.

다음날 아침은 준비해간 재료와 전날 잡은 해물을 이용하여 만든 맛있는 이죽을 함께 나누었고, 떠날 아쉬움에 다시 한 번 갯벌로 나간 회원들은 어제의 경험을 살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회와 토종닭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은혜롭고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채 대부분 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라 목양지로 향했다.

야유회, 동해안 찾아 회원 간 친목 다져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이충만 목사)는 지난 3일(화) 야유회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둘러보며 회원 간의 친목을 다졌다.

회원들은 먼저 묵향과 논골담길전망대에서 동해안의 푸른바다를 감상하고, 이어 무등계곡을 찾아 산행하며 심신을 단련했다.

한편 이번 야유회에서는 회원들의 사랑의 섬김도 돋보였다.

행사를 진행한 임원들은 물론이고 증경



회장들이 찬조했으며, 서기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는 점심식사, 증경회장 원본

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는 저녁식사로 회원들을 섬겼다.

월례회,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감당 최선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는 지난 5일(목) 예광순복음교회(담임 민병훈 목사)에서 11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민병훈 목사의 사회,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기도, 이어 지방회 부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가 요21:1-6 말씀을 본문으로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설교에서 "모든 성공과 실패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며 누구든지 실패를 원치 않고 성공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우리는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일어나 달려가야 한다"고 전하고 "본분의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한 원인이 어둠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지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회복되는데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곧바로 이어진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인도 하에 김창선 전도사(증평순복음교회 부교역자) 임명을 갖고, 이어 각 부서의 보고를 받아 처리하였다. 특히 지난 9월 21일에 있었던 제 2

회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적극 협조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내년 성지순례를 위해 적극 협조와 기도를 부탁한 후에 지방회 발전과 병환 중에 있는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12월 송년회 모임을 기약하며 월례회의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예광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풍성한 오찬을 나누는 뒤에 목회자 심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월례회 및 괴산 야유회 '진정한 예배자'

경기동남지방회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10월 29일 지방회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가을 단풍이 절정인 시기에 맞추어 충북 괴산을 대대리 유영 전문 식당가에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하여 대표 기도에는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 담임)가 설교에는 정세장 목사(안성은혜교회 담임)가 요 4:24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정 목사는 축복 받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함으로써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 김진태 전도사의 한글 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괴산의 최고 풍미인 메기 매운탕을 함께 하며 정답을 나누었으며 오찬 후에는 인근 유영 관광지인 '천막이 옛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향기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며 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다.

또한 수안보로 이동하여 온천을 함께 즐기며 온몸에 축적된 피로를 확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원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추계야유회, 강화도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심현일 목사)는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추계야유회를 갖고, 강화도에 소재한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했다.

이번 추계야유회를 통해 인천지방회원들은 강화도에 남겨진 우리나라 초기교회의 많은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보며 한국선교의 시련과 역경의 과정을 생생히 체험하고,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김건수 목사

· 제주지방회장
· 예하성 부흥사회 상임총무
· 순복음예수나라교회 담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 또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 받는 삶, 다시 말해 내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내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계명을 쓴 돌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나무 껍질에다가 담고서 그 껍질 위에다가 황금을 입혀서 간직했고, 그 보석같이 귀한 말씀을 쫓아 살려고 했기에 그것을 황금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 해서 언약궤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며 살도록 명하신 법이라 해서 법궤라고 했으며, 이 말씀대로 사는

벤세메스로 가는 소 (삼상 6:1~14)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 해 준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든 궤짝 안에다가 말씀을 소중히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그 법궤가 항상 맨 앞에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법궤 위 속죄소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해서 덮는그릇이라고 했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 받는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백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탈취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법궤를 탈취당한 지 7개월째 되던 날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독종이 생기기 시작하고 법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자했고 계속해서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궤야는 이 궤를 빼앗아 온 것을 후회했고 너무나 두려워서 서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떠넘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법궤를 반환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상의한 끝에 법궤를 실어갈 새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땅에를 매어보지 아니한 쫓는 소들을 데려왔습니다. 금궤 새끼를 낳아 쫓이 막 흘러내리는 어미 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어미 소를 애태게 쫓는 새끼 송아지는 단호히 떼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 쫓이 나는 압소 두 마리는 오늘날 그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하는 신약교회 성도들 즉,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쫓이 나오는 어미 소 두 마리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새끼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어미가 금궤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떼어 놓으면 송아지는 어떻게 되겠으며 새끼소를 바라보는 어미 소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정말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만큼은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목숨을 걸고서 지키며 양육합니다. 지금 이 어미 소들은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미 소가 벤세메스 쪽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어미 소의 모습이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할니까? 내 인생의 등(승) 위에 진리의 말씀을 싣고 세상 에 전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태어내

야 될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에 그러한 고난도 묵묵히 감수하고 가야만 되는 길이 우리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떼어놓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습니까? 내 삶에 조그마한 부담과 불이익만 와도 말씀(언약궤)을 도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내려놓고 넓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어미 소는 서럽게 평평 울면서 올라갔는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벤세메스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지꾸 마음이 쓰여서 좌우로 기우뚱 기우뚱 할 수도 있었는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궤를 실은 수레를 어깨에 메고 목적지인 벤세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올라갔던 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서 이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위기가 닥쳐온다면 과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위기를 거부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한번 쯤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고, 사명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주의 영광 때문에 핍박 받아야 하고, 직분 때문에 서러움 당해야

하고, 진리 때문에 외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벤세메스 골짜기까지 드디어 이 쫓는 압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미 소들이 사력을 다해 무거운 짐을 메고 올라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해서 궤코 물과 먹이를 먹여 주지 않았고, 그러운 새끼에게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가 끌고 온 수레를 쫓아 그것으로 단을 쌓고 그 어미 소를 그 자리에서 칼로 잡아 목을 치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떼서 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고 재를 만들어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이것을 반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어떤 모습이여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분에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남은 목숨 한 조각 까지도 온전히 다 드리고 자기가 말씀을 싣고 올라갔던 바로 그 수레(속제)마저도 필감으로 써서 자신의 몸은 반제물로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이바지한 향기로 향유하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만을 남겨둔 채 우리는 빛도 이쁨도 존경도 없이 사라지는 벤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일감(사명=복음)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과는 세상 끝날 까지 항상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등에 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 사역지이고, 쉬고 위로받고 상 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다. 무자비한 대량의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평본이나 구실은 접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IS의 만행을 강렬하게 규탄하고, 한국 내의 IS 테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만행의 잔혹성도 문제지만, 치밀한 '대규모 종교청소' 계획에 의해 중동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타지는 대로 무차별 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자행할 때 마다 종교를 묻고 기독교인이 확인되면 가차 없이 살해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IS의 '대규모 종교청소' 계획에 의해 아시아의 기독교의 중심지인 대한민국이 IS들에게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국일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저들의 만행에 대한 민국에서 자행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테러 방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동 정

벨 국제아카데미와 업무협약



나사렛대(총장 신민규)는 충남 논산에 소재한 기독교 교육 대한학교인 벨 국제 아카데미(교장 이흥남)와 지난 3일 오전 11시 나사렛관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기독교 기하제공과 기독교 교육 발전과 기독교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교류에 대해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한남대, 신임총장에 이덕훈 교수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이사장 이락원)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경영학과 이덕훈 교수를 제16대 총장에 선출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이 신임 총장은 한남대를 졸업한 동문으로, 1992년 한남대 교수로 부임, 학술정보처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조정처장 등을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성서공회 정기이사회



대한성서공회(이사장 이정익 목사) 제12회 정기이사회가 오는 24(화) 오전 10시 정동제일교회 은명홀(2층 사회교육관)에서 개최된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회무처리에서는 이사선임과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대한성서공회 120주년 기념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교연총무협 신임회장 김명찬



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는 제5차 정기총회를 지난 12일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총회 본부에서 갖고, 신임 회장에 김명찬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회장 김명찬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총무협은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to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잘 빠진 2013~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목양時論

림인식 목사 // 한복합 자문위원, 노랑진교회 원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

▶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전세가 불리해진 남부의 장군이 북부의 장군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의했다. 지도를 펼쳐놓은 후 먼저 남부의 장군이 “우리가 이만큼의 땅을 포기하겠소” 제언했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다시 남부에서 “그러면 조금 더 양보하면 되겠소” 하니가 북부의 장군은 지도에 자기 손을 얹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 전부를 소유해야만 하오.” 하여 협상이 깨졌다.

▶ 6.25 당시 전쟁 발발 1년 남짓 됐을 때 U. N. 사무총장이 휴전을 제의한 것을 시작으로 2년에 동안 총765회의 회의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조인하여, 3년 1개월 2일(1,129일)간의 전쟁을 간신히 휴전하였다.

인간의 협상으로 통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0)는 말씀만이 정답이다. 통일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주신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공산주의 사상이 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적대시 충돌하면서, 피차 증오와 투쟁심이 마치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듯이 모든 방면에 깊게 박혀 버렸다. 전날에는 심지어 한 가족 사이에서도 이념이 다르면서 서로 죽였다. 지금은 다소 완화됐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 화합은 어렵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인해 원수가 된 형제가 많아졌다. 이념 갈등 난치병부터 고쳐야 살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을 고치고 통일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회개혁을 하지 않으셨다. 포악한 전체주의를 공격하지 않으셨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도 않으셨다. 외교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으셨다. 음주와 도박을 공격하지도 않으셨다. 왜냐? 이것들은 지역적인 차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 3:2, 4:17)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로 회선을 다하며 사셨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로 마쳐졌다. 하나님 나라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친히 세상에 오

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것이 근원적 변화의 길이다.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1874년)에 황해도 부자 집 외동아들로 태어난 김익두는 어렸을 때 큰 꿈을 안고 한학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과거를 보았는데 낙방하고 말았다. 설상가상 격으로 아버지마저 사망하였고,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인생 불행의 폭탄을 한꺼번에 맞은 그는 타락에 빠져 방탕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전하에 몸쓸 불량배가 됐다. 김익두의 행패가 극심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고, 경찰마저 검을 낼 정도였다. 그러다가 친구 박태후에게 끌려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강해 김익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치 벼락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두렵고 떨렸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 통곡하며 기도드리고 순한분 신약성경을 100번 읽으며 참회하는 중에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불새떼를 경험하였다.

그가 삼일 간 금식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져 화끈거리는 체험을 하였고 하늘에서 “김익두야! 김익두야!”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염없이 울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회개하면서 그는 과거를 뒤우치고 사람을 때린 장소마다 찾아다니며 방생대곡으로 울었다. 그가 회개한 다음 맨 처음 한 일은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는 자신의 부고장을 돌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강해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는 모두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목회자로 대 부흥사로 총회장까지 하면서, 150여 곳에 교회를 개척해 세웠고 이만팔천 번의 설교를 했으며 776번의 부흥 사경회를 인도했다. 그의 집회는 죄를 회개하는 일과 병 고침을 받는 자유의 은사가 나타나 많게는 만여 명이 모였는데, 새 신자 28만 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은 자 일만여 명에 달했다. 그의 집회를 통한 감화로 목사가 된 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기철 목사, 대부흥사 이상봉 목사, 신학자 김재준 목사 비롯하여 200여 명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근

원적 변화를 받게 된다. 지역적인 포악한 전체주의도 노예 분제도, 음주와 도박 문제도 모두 변화를 받게 된다.

한국은 내 교회 안에서 사상적으로 보수와 진보, 정치적으로 여와 야, 이념적으로 좌익과 우익을 같이 맞아야 한다. 지역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화해시킬 수도 없다. 이들을 꼭 같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원적 구원을 통해서만 이들을 살릴 수 있고 화해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불가능한 지역적인 일에 집중하여 과열할 정도로 노력하면서 근원적 구원을 소홀히 하기 쉽다. 순서가 바뀌었다.

죄는 기독교의 원수이다. 죄는 끝까지 미워하고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죄인은 구원할 대상자이다. 받아들이고 사랑하여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죄와는 타협하고 죄인을 미워한다. 잘못이다. 공산주의는 교회의 원수이다. 끝까지 미워하고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구원할 대상이다.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포함한 동포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공산주의는 미워하지 않고, 공산주의자를 미워하고 원수시한다. 잘못이다. 민족통일을 필수로 하는 우리 한국 목회 현제와 미래는 정치적, 이념적 진박자가 되어서는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구원도 화해도 주지 못하고 갈등만 만들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철저히 신약적이고 복음으로 근원적 구원을 통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진정 원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적 평화통일”이다. 물론 이 목표를 이루어 주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지역적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통일 운동을 하여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일을 주시는 일의 심부름이 확실한 활동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 16:7)

온선 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베토벤 워너비
(Beethoven Wannabe)

- 히 10:38 -

루트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 - 1827)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전율을 느낍니다. 그는 악성(樂聖), 혹은 고전음악의 완성자라고 불립니다. 역시 위대한 작곡가였던 리스트(Franz List, 1811 - 1886)는 그의 작품을 기리켜 음악가들에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불기둥, 구름기둥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국의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죽을 때까지 베토벤만 연주하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에디스도 불리는 발명가 나가마츠 요시히로는 1962년 어느 날 그의 5번 교향곡 ‘운명’을 감상하다가 잠을 없이 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바늘 없는 천축을 발명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초기형태의 플로피디스크와 드라이브를 발명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이 초사대적이며 범인류적인 베토벤의 음악은 교만치 않으면서도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깊습니다. 웅장하면서도 따뜻합니다. 비에가 깃들어 있으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음악은 정말 그의 생애와 닮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탄생부터 운명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습니 다. 그는 매독에 걸린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결핵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형제가 여섯이나 있었지만 모두 단명하고 두 명의 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고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의 나이 네 살부터 시작된 음악만큼은 꿈틀꿈틀 자라나 그의 생애 전체를 담쟁이 넝쿨처럼 뒤덮어 나갔습니다. 열 살이 조금 넘어서부터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 - 1750)의 뒤를 이어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던 ‘요한 할러’의 수제자인 ‘크리스천 고트로프 네페’(Christian Cottle Nefé)에게 가르침과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열일곱에는 비엔나로 건너가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년 - 1791) 앞에서 즉흥연주를 하여 그를 감동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스무 살에는 하이든 (Franz Joseph Haydn, 1732 - 1809)의 제자가 되어 음악적 재능을 심화시켜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베토벤은 일찍부터 베히고 함께 연주자 혹은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숙명처럼 집요한 고독과 고난은 베토벤이 거치는 생의 고통들을 지기고 있었습니 다. 어머니를 열일곱에, 아버지를 스물 둘에 잃었던 이 외로운 음악가는 사랑을 해도 늘 알기만 하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오로지 지독한 가난만이 그의 연인이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역경의 정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나이 스물일곱에 얻은 -음악가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청각장애일 것입니다.

결국 서른네 살에는 완전한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순간부터 ‘베토벤의 베토벤’ 뎀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떤 시기에도 음악가로서 머뭇거렸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물일곱부터 눈을 감은 한일곱까지 들리지 않는 채로 더욱 맹렬히 곡을 썼습니다. 앤 필로트 베이커(Anne Pimlott Baker)는 《베토벤 평전》에서 “베토벤의 음악은 오히려 그가 청각을 잃은 뒤에 한층 심오해져 갔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음악인생에서 청각 없이 상상만으로 곡을 만들었던 시기를 제8기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 기간 동안 ‘교향곡 제9번’, ‘장엄미사’, ‘마지막 현악중주곡’ 등을 만들었으며, 오늘날 이 곡들은 전부 서양음악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흔히 감탄을 자아내는 음악적 천재성이나 짜임새는 모차르트를 따를 자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휘감는 감동만큼은 베토벤을 따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찬사하는 말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감동은 그의 재능만큼이나 그의 전 생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지독한 삶을 이겨내며 끝내 구족하고 보여주었던 그 깊고 단단했던 정신세계가 그의 음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그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왕자는 많다. 그러나 세상에 베토벤은 오직 한 명이다.” “파리 몇 마리가 날아든다고 해서 나의 달리는 준마를 멈출 수 없다.” “작곡에 대한 나의 열정을 모두 작품으로 쏟아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죽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의 꿈을 막아서지 못하게 만들고만 사람, 베토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음표들은 곧 그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의 가던 길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겠습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다문화 문화교육

한국어인문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어인문학교육학회(회장 김금희)는 지난 7일(토) 나사렛대 패지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가 만나는 그림책, 다문화 맥락에서 문학교육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에서 다문화 교육과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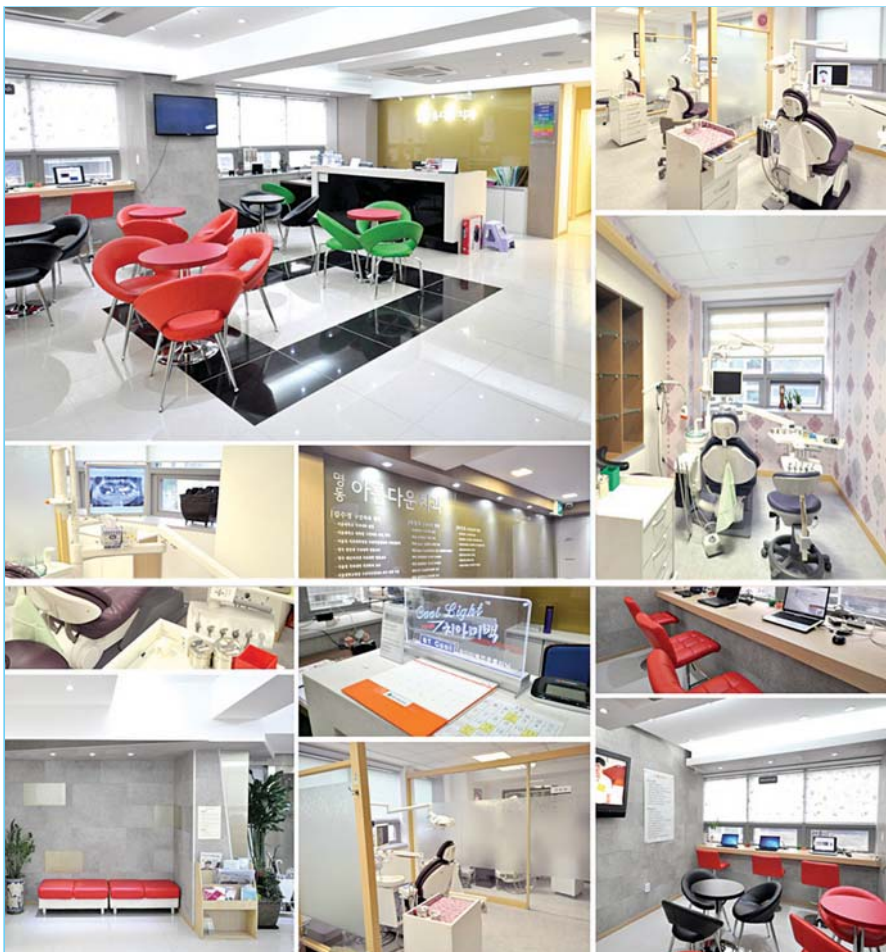
대학교수, 전문 연구자, 동화작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25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휴용 전북대 교수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어린이 다문화교육의 최근 동향’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양질의 다문화 그림책 특성과 선정 기준(김민화 교수/신한대), ▲작가의 눈으로 본 다문화 그림책(최인선/그림책 작가), ▲유아와 함께하는 다문화 그림책 활용 방법(한

기원 교수/중앙대학교) 등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김현희 열린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청중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기도 했다.

한국어인문학교육학회는 어린이 문학 발전과 연구를 위해 대학교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 4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봄·가을 일년에 두 차례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명동아름다운치과
MYEONGDONG AROMADOWN DENTAL CLINIC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업무협약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진료하는 명동아름다운치과의원입니다.

다년간 임상경력과 함께 믿음의 뜻을 품은 치과입니다.

구강건강을 통한 마음과 치아가 아름답게 웃을수 있도록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진 료 안 내 : 임플란트, 치아교정, 심미보철, 어르신을 위한 틀니, 보철진료
평일 진료시간 : 오전 9:30분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야 간 진 료 : 오후 9시까지

오시는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4번출구 50m
직진 세대빌딩 8층

주 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3가 11-3
세대빌딩 8층

찾아오시는 길



문의 / 상담 : 02-777-1224 , 778-1224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150112-중-9266호

월례회, 교회 부흥 성장 방안 등 논의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17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탁정신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증경회장 박행남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장수 목사 주재로 열려 총무보고 및 재무와 회계보고를 받고 지방회의 각종 현안들을 토의하고 처리했다.

특히 이날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소속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끝으로 지방회와 총회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사라현도 마루사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새생명교회 입당 및 11월 월례회

경기동남지방회

경기동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담임 이광우 전도사)는 지난 9일(월) 경기도 수원시 파장로53 벽산블루밍 아파트 상가3층 새성전에서 성전 이전 및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입당예배는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되어 표한자 목사(사뵈기에심은나무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 담임)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0:1-10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는 생명을 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는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 권면에 증경회장 이규호 목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회원들의 기도와 목대원 동기생들의 특송 등 축복 속에 새 성전 입당을 축하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이광우 전도사는 감사 인사말을 통

해 새 생명의 열매가 맺도록 기도를 부탁했으며 헌금기도에 오용득 목사(진리와빛교회 담임), 지방회장 김남수 목사의 축도록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지방회 회무를 처리하였고 제반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방회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월례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져야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는 지난 9일(월) 오전 11시 선교중앙교회(담임 김명자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총무 정찬식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회계 서은자 목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회장 김영식 목사가 삼상 2: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지식으로 나 이론적인 인식만으로 주님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써,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으며,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무 정찬식 목사의



총무보고, 회계 서은자 목사의 회계보고에 이어 지방회 현안에 대한 안건을 토의하고 월례회를 마쳤다.

월례회를 마친 후 참석한 지방회원들은 선교중앙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6-1007



(학장 임종달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여목사 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이규호 목사)

예하성강원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사이버신학과정 운영 중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회망로 87
- T E L : 033)434-3136, 010-7504-0172
- e-mail : li4499@naver.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년 전국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빌 2:13)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송년예배
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담임 정부용 목사) ☎ 전화 02)845-5095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79 / 구주소: 영등포구 대림2동 1116-49

| 대 상 | 총회 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원

| 주 관 | 전국여교역자국

| 문 의 | 국장 탁정신 목사(010-5313-3379)

차장 김선경 목사(010-8000-5841)

일 정 표

시 간	프 로 그 램	내 용
10:30~11:00 (30분)	찬 양	인 도 자 : 변원식 목사
11:00~12:00 (60분)	송 년 예 배	사 회 : 김선경 목사(여교역자국 차장) 기 도 : 최영희 목사(행사부장) 특 송 : 각 지부장(당신의 그 섬김이) 설 교 : 정부용 목사(여교역자국 고문) 헌금기도 : 김종애 목사(봉사부장)
12:00~13:00 (60분)	점 심 식 사	
13:00~13:30 (30분)	찬 양	인 도 자 : 변원식 목사
13:30~15:00 (90분)	레 크 레 이 셴	“사랑으로 하나되기~” 강 사 : 변원식 목사
15:00~16:30 (90분)	성 령 대 망 회	사 회 : 한순남 목사(홍보부장) 기 도 : 이명순 목사(친교부장) 특 송 : 임 원 일 동 설 교 : 탁정신 목사(여교역자국 국장) 광 고 : 김선경 목사(여교역자국 차장)

조 직



정책위원장
정세원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정진용 목사
새소망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국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차장
김선경 목사
천안세계로교회

각 부 장



예배부장
김호신 목사
순복음천안교회



행사부장
최영희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경조부장
김순자 목사
희복의순복음교회



복지부장
이경자 목사A
순복음돈곡교회



홍보부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
임신별교회



신교부장
조윤주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친교부장
이명순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봉사부장
김종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정보통신부장
신영희 목사
부활순복음교회

전 국 지 부 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김희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이현옥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정예스터 목사
예수향교회



경기지방회 지부장
김선희 목사
열방순복음교회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김정순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김남순 목사
열방순복음교회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이경자 목사B
열방교회



경기동남지방회 지부장
김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경기동남지방회 지부장
김성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경기동남지방회 지부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경기동남지방회 지부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광주지방회 지부장
김희자 목사
신영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이경애 목사
임마누엘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최정희 목사
성령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종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라지방회 지부장
김선애 목사
군현순복음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배영래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임성애 목사
성령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정복래 목사
순복음동신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심연숙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전북지방회 지부장
심연숙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차장 김선경 목사

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예배·심포지엄

성서전시회 통해 한글 고본 성서원본도 최초 공개

대한성서공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24일(화) 정동제일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오후 1시 30분~3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오후 3시 30분~5시 30분). 또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서전시회도 연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10월 18일에 한국에서 성서사업이 시작되어, 지난 120년 동안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로 성서를 보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며, 국내외 성서 보급사업에 대하여 회고하고, 미래의 성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 창립 이래로 오랫동안 외국 성서공회들의 지원으로 성서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1979년 자립을 한 이후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성서 보급을 확대하게 되어 현재까지 약 1억 6천만 부의 해외 성서를 보급하였고, 해마다 240

여 언어로 된 약 7백만 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120여 나라에 보급하고 있다.

120년 동안 대한성서공회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념예배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 일본 성서공회 총무, 탄자니아 성서공회 총무 등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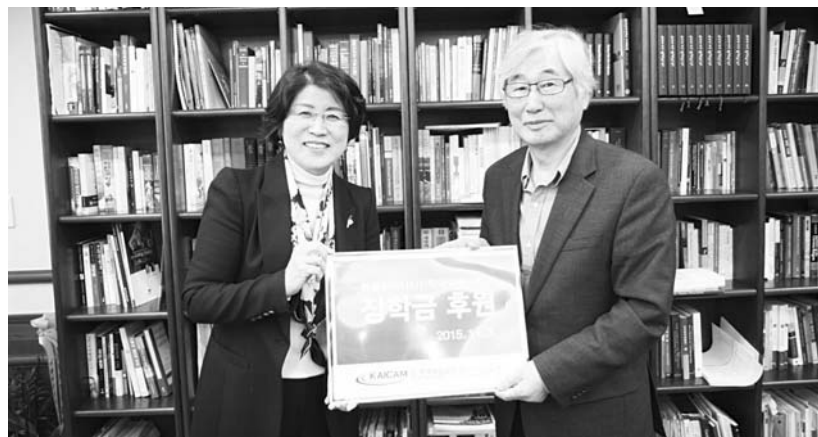
이어지는 학술 심포지엄은 이만열 박사(전 국사편찬위원장)가 사회, 박동현 박사(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가 “한국 교회에서 개혁 성경이 갖는 의의 - 개혁 성경의 재발견 -”, 옥성득 박사(UCLA 교수)가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당일 하루 동안 개최하게 될 성서전시회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한글 고본 성서 원본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초의 우리말 단편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년), 이수정역 현토본 성서들(衛約聖書 馬太傳[1884년 등) 및 〈신약마가전복음서언주〉(1885년), 최초의 우리말 신약성서인〈예수성교전서〉(1887년), 〈마태복음〉(1895년), 〈창세기〉(1906년), 〈이사야〉(1908년)와 초기 단편들, 최초의 국내 공인역 〈신약전서〉(1900년)와 최초의 우리말 완역 〈성경전서〉(1911년), 〈성경 개역〉(1938년) 등이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초대된 예배 참석자들에게는 기념 선물로 〈성경 개역〉(1938년 영인본)을,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는 〈성서 속의 식물들〉(신간)과 〈기념 논문집〉을, 성서전시회에서는 〈전서 자료해설집〉을 제공한다.

참가신청 www.bskorea.or.kr
문의전화 02-2103-8847~8



햇볼트리니티에 ‘카이캄 장학금’ 지원

목사안수식 현금으로 장학금 조성, 선배 목회자들의 마음 전해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신상우 목사, 이하 카이캄)가 지난 3일(화)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 원대학교(총장 이정숙 박사, 이하 햇볼트리니티) 총장실에서 목회자 양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카이캄은 이날 햇볼트리니티에 ‘카이캄 장학금’ 1200만원(원)을 전달했으며, 이 장학금은 신학공부를 마친 후 카이캄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선정과 지원은 햇볼트리니티에 전적으로 일임됐다.

소명에 순복하는 순교적 목회자,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는 목회자, 인성과 전문성·품성과 영성의 목회자를 추구하는 카이캄은 햇볼트리니티에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카이캄 선언에 부합하는 바른 목회자를 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카이캄이 이번에 전달한 장학금은 회원교회와 신학교, 선교단체들이 매월 납부한 회비와 지난 제32회 목사안수식에서 걷힌 현금으로 마련됐다.

연합회장 신상우 목사는 “우리 카이캄이 매년 목회자들 안수에 세우지만 목회자가 되기까지 재정적인 곤란에 처한 이들이 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 카이캄에

서 목사안수를 받게 될 신학생만이라도 등록금 걱정에 서 벗어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카이캄 회원들의 회비로 지원되는 만큼 선배 목회자들의 정성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며 “수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바른 목회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햇볼트리니티 이정숙 총장은 “우리 학교에는 30여 개국에서 모여든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돼 있다”며 “카이캄이 회원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겠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카이캄은 수년 전부터 햇볼트리니티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회원신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지난 해 11월에는 이를 ‘카이캄 장학금’으로 명명하여 공식화했다. 카이캄은 이날 햇볼트리니티 장학금 전달에 이어 19일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며, 채플 시간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카이캄 설명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ACTS·중국 하북사범대 MOU ‘복수학위 인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이하 ACTS) 총장 김영욱 박사는 지난달 30일(금) 중국 하북성 석가장에 위치한 ‘하북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양기관의 상호 발전과 학생교류를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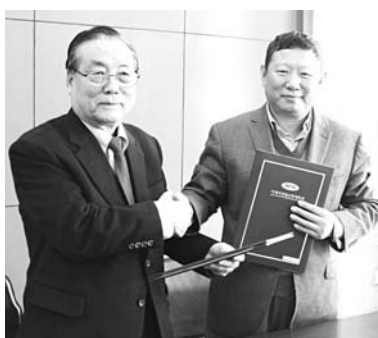
중국 하북사범대학교는 1902년 순천부학당과 1906년 천진의 북양여사범학당으로 출발한 전통 있는 학교로 지금은 100여 개의 학교에 38,520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교수진은 물론 교육환경 또한 최신헌된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 ‘3+1 복수학위’ 협약을 통하여 ACTS 선교중국어학과 재학생들은 ACTS에서 3년, 하북사범대

학교에서 1년간 수학함으로써 양국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ACTS 선교중국어학과의 재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한 중국 대학교에서의 연수를 이어오고 있고, 2학년 1학기를 하북사범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와 중국어 실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2013학년도에 신설된 ACTS 선교중국어학과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균형잡힌 교육을 통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 복음사역을 포함한 대(對)중국분야에서 활약하는 중국전문가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YMCA 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회

“청소년의 밝은 미래, YMCA와 함께”



서울YMCA는 1903년에 창립된 최초의 민간청소년단체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운동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밝은 미래, YMCA와 함께”라는 기치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운영하여 왔다.

작년 창단연주회를 성황리에 진행한 서울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상에 올랐다는 평을받으며 서울YMCA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확정하고, “우리들의 꿈, 날개를 달다 II”라는 주제로 지난 17일(화)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제2회 서울YMCA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독일 카셀 시립대학에서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창단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서울YMCA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정

소일 지휘자가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1부는 모짜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서곡, 몬테의 치프리스 바이올린 협주곡,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모짜르트 클라리넷 콘체르트 A장조 전 악장을 바이올린 성주연, 테너 황준호, 클라리넷 양희진이 협연하며, 2부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는 이례적으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전 악장을 풀 판성, 오리지널 악보 그대로 연주했다.

서울YMCA는 이번 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회를 통하여 누구나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지평 확대에 이바지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사회와 아름다운 하모니로 소통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서울YMCA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은 전석 무료초대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가정선교사를 위한 훈련센터 생긴다”

하이패밀리 창립 25주년 맞이해 새로운 비전 선포

사)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지난 18일(수) 오전 11시에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에 있는 W-Zone에서 하이패밀리 25주년기념 가정선교훈련센터(이하 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렸다.

이 센터는 특별한 기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수년 전 하이패밀리의 프로그램에 감동한 한 가정이 자신의 땅 1,200평을 하이패밀리에 기부한 것. 그 땅이 현재 센터 구상의 토대가 되어 하이패밀리 25주년의 비전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모든 교회의 숙제와 같은 선교문제를 풀자는 의전과 함께, 퇴직 선교사들을 재훈련하고 그들이 다시 현직 선교사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가정선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가정선교훈련센터를 만들자

는 계획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의 은퇴 후 거취문제의 해결은 물론, 현직 선교사들의 가정문제 등을 해결하여 교계 전체의 과제를 해결해 가자는 취지다.

이 센터가 준공되면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더욱 많은 영혼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정사역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훈련센터는 1513.17m2(457.73평)로 건립되며 선교훈련 공간, 연구소 사무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동안 거처하게 될 게스트하우스는 42554m2 (128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기독교 장묘문화에 부는 신선한 바람!!

1. 기독교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 최근 화장률의 증가(79.6%)로 각 종교단체에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피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 타 종교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장례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 한신교회, 성민교회, 강남교회, 지구촌교회, 주님의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사설납골당에 전용관을 구비하여 교인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백** 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1월 예배당 지하에 1,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관을 설치 운영하여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설무묘관내 교회전용관)



(백** 교회 입구 및 내부)

2. 우리는 왜? 추모 시설을 기피할까요?

- 유골의 변질과 부패로 별레가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추모관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사설 봉안당의 냄새(방향제)와 산만함만을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으면 생활에 불이익을 초래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 교회 추모시설을 어떻게 짓는다면~~~

-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있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 유골의 부패와 변질 없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는 추모관이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에 교인들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존의 사설봉안당과는 차별화된 우리 교회만의 멋을 낼 수 있으며 건축비가 경제적이며 관리운영비가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4. 우리 교회 추모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 종교시설 내 추모관 설치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회 내 또는 우리교회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추모관도 함께 설계가 가능 합니다.
-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봉안당 조성 비용과 운영자금의 조달을 여러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전용 추모관 건축의 기대효과!

- 개척교회는 교회건축 시 추모관의 선 분양을 통하여 건축비 조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의 새로운 사람들도 전도되어 많이 늘어나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존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교인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한다면 어찌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것으로 검토하여 받아들이고 교회를 강건하게 교인들의 삶을 좀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장묘문화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보다 봉안당 인·허가 용이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교회 전용추모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美空 Space Aesthetics 공간미학

코리아에프엔디 Korea Funeral & Development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3 대표전화 : 1899-1659 / FAX 032)512-0925

CTS,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 개최

통계조사 및 교회학교 세미나 통해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환기 기대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CTS아트홀에서 목회자 및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교회 130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개최될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는 △1부,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와 △2부, 교회학교 세미나로 진행된다.

2015 한국교회 통계조사 학술대회와 기자회견을 겸하는 1부에서는 월드아시아포럼 국제대표 오상철 박사를 비롯하여 권오병 교수(경희대 경영대학), 영남신학대학교 오규환 총장, 장성진 목사(서북한빛광성교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통계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들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부, 교회학교 세미나에서는 1,700명의 교인 중 교회학교 학생들이 700명에 달하는 부천 성만교회의 교회성장 비결에 대해 이찬용 담임목사가 「한 교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전도, 정착, 양육」 등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직접 전해 듣는 교회학교 부흥 비법이 공개된다.

CTS 감경철 회장은 “교회의 근간이 될 다음세대를 위해 한국교회는 어떠한 노력들을 펼쳐야 할지 고민해 보는 이번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교회의 희망과 비전을 그려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CTS는 앞으로도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CTS의 섬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위기가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 위기 극복 방안 에 대해 논의할 이번 세미나 참가자 접수는 CTS 교회협력팀 (02-6333-2525) 으로 하면 된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가족세트전도가 말씀 능력전도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가 있었다.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가 능력전도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초청을 받아 갔다. 능력전도? 참으로 궁금증을 안고 참석했다.

“어떻게 능력전도를 하는가?”에전에 다른 전도법도 많이 해봤지만 그다지 결실이 많지 않았는데. 그러나 참석해서 전도코칭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 현장전도에 나섰다. 강사 박영수 목사님을 나는 바짝 따라가 지켜보는데 이제껏 많은 다른 방법의 전도를 해봤지만 이런 전도 방법은 처음 봤다.

어찌된 일인지,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낯선 사람인데도 길 가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으세요!” 기도도 축복하면서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제가 1분 동안 축복기도 하니 따라하세요!”(요 1:12)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영접기도다. 연이어 “아멘 하세요,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 한다고 말하고 노트에 적으면서 “신이 감시세요?” 질문하면 영접기도 받은 자가 복언의 이름을 알려준다. “몇 년생이죠?” 생년월일 알려주고 “어디 사시죠?” 하면 주소를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는요?” 물으니 번호도 알려준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신상을 알려 주는가? 먹을 것, 생활용품 등을 갖다 주고도 공들여도 안 알려주는데 어찌 단번에 알려주는지 믿이 자절로 벌어진다. 총적 그 자체였다. 현장전도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가족세트전도 훈련을 받기로 굳은 결심으로 등록했다. 부족하지만 116기 세트전도 회장 일을 맡게 되었다. 매주 수요일 찬송과 기도로 준비하고 평내 호텔에서 현장전도실습을 한다.

말씀을 선포하니 심령이 사로잡히며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골 2:10)는 말씀처럼 말이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말씀의 감으로 성령에 압도당한 순간 성

령의 인도로 신상을 술술을 알려준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지니”(롬 10:10) 더욱 놀라운 일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행 13:48) 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된 영혼으로 구원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내 고정관념 선입관을 깨뜨려야 한다. 묵회하며 노닐, 축호전도는 했지만, 부끄럽게도 삼가전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개봉동 시온성교회에서 1차 9월 10일, 2차 10월 29일 가족세트전도컨퍼런스를 했다. 박영수 학장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전도코칭예배를 드리고 현장전도 나갔다. 교회 주변 상가, 상인들을 전도했다.

영접기도를 받고 교배도 부쳤다. 대답했던마음이 시원함을 느꼈다. 현장전도로 우물증 걸린 여자 청년이 교회 나왔다. 치유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영접기도 받은 명단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한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한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전해야 한다. 최고의 선물이 전도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데 그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의 기쁨의 도구되길 원한다.

엘리아의 감점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감절로 능력을 받아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박영수 학장 목사님의 전도 코칭을 잘 훈련받아 주님께서 내 목회에 맡겨 주신 귀한 사명, 보배로운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싶다. 내가 25세에 대형교통사고로 죽을 뻔 했던 날을 회상해 본다. 날 구원하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하신 나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 잘 수행하며 살고 싶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시온성교회(개봉동)/가족세트전도 116기 회장 송영남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교연 300여 탈북민 초청 힐링캠프 열어

수기 공모 대상 김설경 씨, 결혼과 신앙으로 회복 과정 소개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주최한 제2회 탈북민 초청 힐링캠프가 지난 11일 서울 연지동 여진도회관에서 탈북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캠프에서 한교연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후 각고 끝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허혜숙 권사)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관한 이날 탈북민 힐링캠프는 오전 10시 1부 예배와 2부 축하와 격려, 3부 탈북사례 발표회, 4부 오찬과 친교로 이어져 오후 2시까지 계속됐다.

허혜숙 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여성상 목사(기성 부총회장)의 설교, 김충성 목사의 찬양, 총무 나종신 권사의 내빈 소개, 김준규 사무총장의 환영사, 이성희 목사(통합 부총회장)의 격려사, 동영선 목사(한교연 탈북민 상담소장)의 축사에 이어 홍기숙 장로(직전 여성위원장)가 참석한 탈북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여성상 목사는 설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살림, 즉



평안은 우리나라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탈북민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참 평안, 살림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옥 권사(여성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례발표는 수기를 응모한 101명 중에서 10명

이사례를 발표, 이중 김설경 씨가 대상을, 이장된 씨가 최우수상을, 립일 씨가 우수상을 차지했고 홍순희 씨 등 7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영환 교수(서울신대)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동안 탈북자 출신 박애영 전도사(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간증이 이어졌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루터의 십자가 신학’ 개정판 발간



기독교한국루터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전집 번역 작업과 함께 루터총서를 선정 발행하기로 하고 먼저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루터의 십자가 신학’ 개정판을 발

행하였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가 자신의 첫 저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들 중 하나라고 소개하는 책이다. 1985년 첫 선을 보인 이 책의 우리말 번역본은 2001년 컨콜디아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저자는 2011년 25년이 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롭게 축적된 루터연구의 결

과물들을 반영하고, 초판의 몇몇 주장들과 결론들을 수정하여개정판을 내놓았다.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루터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1509년부터 1519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출현, 특히 “십자가 신학”의 출현과 더불어 그 격동의 시기를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독자들에게 나눈다. <신도판, 가격 17,000원>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요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느냐 현재대로 검인정화 하느냐하는 문제로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 좌편향 세력들은 정부가 무슨 반 국민적 처사를 했다는 듯이 총궐기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친일, 유신 미화 책동이라고 주장하며 악선전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시정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결정은 집단이기주의의 이념대립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역사 논쟁을 통해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세력들은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지적에 대해 친일, 독재로 맞서 투쟁화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친일·독재 미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만이 극한 대립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좌파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나라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를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었다. 다양한 역사관을 반영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집필은 물론 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육현장을 장악한 좌파 내지 반국가적 종북 세력은 검인정 제도를 악용하여, 우리의 근, 현대

사 기록을 왜곡하고 저들의 좌파, 종북 이념으로 물들게 했다.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 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7종 속에는 종북 좌파 교과서 집필자들이 우리의 근, 현대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기술한 내용들이 버젓이 들어 있다. 전국의 2285개 고교에서는 주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이들 편향된 교과서를 거의 전부(99%) 채택되어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곡 기술된 내용 일부를 보면, 1948년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라는 식으로 교묘히 거짓을 포함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사례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나 천안함 폭파 등 대남도발, 반인륜적 핵무기 개발,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의 경제 발전기여 등은 기록을 회피했다.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을 미화한 내용들은 도처에 편집되어 있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에서 건국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히 반 대한민국, 반 이승만, 친 북한 공산당, 친 김일성 노선으로 허위, 왜곡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민

중사관'에 따라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은 소리 없이 친북 좌편향 역사관으로 '세뇌'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역사교육 파행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은 이 나라의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을 사수해야 할 정부의 책무다. 지체할 수 없는 중대 문제이므로 왜곡 기록된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고치고, '비정상적인' 역사교육을 '정상화' 시키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역사교과서 바로잡기와 정상화 과업을 두고 이런 저런 관념론과 양비론으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일도양단'의 결단을 내려 역사교과서를 한시라도 시급히 바로 잡느냐, 아니면 좌편향의 역사교과서를 청소년 역사관 세뇌공작 악용물로 그대로 두느냐의 두 갈래 판단이 있을 뿐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불순 세력들의 사술로 인해 좌경 역사관으로 오염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판단하고 거짓 선전과 선동에 흔들리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무겁다.

현재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역사교과서 논쟁은 교과서 '국정화'나 '검인정화'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짓 기술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정상화' 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는 제30차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이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2015년 11월 16일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

임원명단

△고문: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문:	최보기 목사(기침)
△고문: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고문: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문: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문: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문: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고문:	윤덕남 목사(기침)
△고문:	임종달 목사(예하성)
△이사장: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대표회장:	이용주 목사(예하성)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기침)
△서기: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서기: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회계: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전리)
△부회계: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성도회총회)
△감사: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전리)
△감사:	박봉수 목사(URC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

가입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 총무: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진동용 목사, 총무: 김병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공병철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장완준 목사, 총무: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전리)총회
총회장: 김영길 목사, 총무: 조영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이한영 목사, 총무: 구영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 위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이상익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황상호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김혜순 목사, 총무: 강인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안형숙 목사
대한예수교성도회총회
총회장: 김지현 목사, 총무: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박경숙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홍록두 목사, 총무: 박영출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총회장: 김효중 목사, 총무: 곡명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이성재 목사, 총무: 안태성 목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재림신앙 영적 각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파루시아 교과서 출판기념 세미나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설교에서 제외시키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설교합니다! 왜 안 하시나요!
현대감각에 맞지 않아서, 축복이 아니라 재앙뿐이라 안하십니까?
그럼 어려워서, 몰라서,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께서는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신분들에게 설교의 입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만 다루면 이단 취급을 하시렵니까!
이단취급 당할까봐 정통목사님이 안 가르치므로...
거짓선지자 이*회, 이단 신*지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파루시아비전선교회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

하나님의 명예회복 선언

요한계시록 παρουσία교과서

요한계시록의 진검교과서!

하나, 답답했던 심령이 싹 해소됩니다.

저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과 올림증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의 고민을 해소하려고 집필했습니다.

둘, 요한계시록 내용이 두루마리처럼 한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방만하고 복잡해서 윤곽이 애매했던 부분들이 명료한 해석으로 푼 떨어집니다.

셋, 재앙을 주시는 창조주가 아닌 사랑 자체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설교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 기쁨과 설렘으로 바뀝니다.



- 일시: 2015년 11월 23일(월) 오후 1시 ~ 4시
- 장소: 여전도회관 강당(14층)
(02-708-3131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 문의: 031-261-0701(한동교회)
010-4844-0699(김성원간사)
- 계좌번호: 농협 543-01-016534(한동교회, 저서: 3만원)
- 오시는 길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2번 출구/대학로 방향)
- *전철/ 4호선 혜화역(3번 출구/서울대병원 방향)

◆ 파루시아비전선교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7번길 15호 010-4844-0699 김성원간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강의를

김경원 목사 // 한복합 중앙위원, 한목협 대표회장, 서천교회 담임



한국교회,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②

- 일치와 갱신, 그리고 섬김으로 -

첫째, 연합과 일치(Unity)다.

우리는 지금 동양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통일 시대를 앞두고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통일문제가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로 둔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교회가 겸손히,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 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연합기구는 보수 진영의 한기총과 한교연, 진보 진영의 KNCC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느 하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으로부터 그 존재의미와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짚조도 하지 않는 현재의 한국교회는 좌우나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함께 공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위험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한국교회는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느슨하더라도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과 교리를 서로 인정하고 역사를 존중하면서 한 지붕 아래 서로 협력하여 교회갱신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개교회가 가진 보편성만이 아니라 한국기독교를 명실공히 대표하는 연합체의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국교회의 대표성과 위상이 사회 속에 정립될 수 있다. 하나의 연합체에서 변화를 추동할 때 한국교회가 사회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다.

문제는 누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한목협이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를 물밑에서 섬겼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할 “교단장회의”를 통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사명 앞에 눈을 감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싶다.

둘째, 갱신(Renewal)이다.

사실 ‘갱신’은 말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실천하여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힘들다. 갱신의 문제가 바로 목회자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의 문제요, 동시에 목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연한 마음으로 ‘갱신’을 외치면 돌아오는 반응은 대체로 ‘너나 잘 하세요’ 하는 식의 반응이며, 갱신을 외친 사람은 위선자로 전락되기 쉽다. 그래서 ‘갱신’이라는 주제는 말하기도 부담스럽고 실천하기에는 더욱 힘들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절실한 문제는 ‘갱신’임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갱신’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목회자 자신의 정체성 즉, 인격과 도덕에 관한 ‘갱신’이 먼

저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나 홀로 앞장서서 희생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갱신’을 피해 가려거나, 껍질식 처방, 그리고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개적인 회개에 뒤따르는 구체적 갱신의 실천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자세를 가지고는 자신의 갱신을 이룰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목회자의 ‘갱신’은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둘째, 목회자의 ‘갱신’은 도덕적 개인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목회자의 ‘갱신’은 교회 재정 운영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갱신’에는 연합기관의 운영과 자리다툼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거창한 담론보다는 구체적인 ‘갱신’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목회자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다른 ‘갱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목회자의 ‘갱신’ 없이 사회 ‘갱신’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갱신’이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사설

IS테러, 사단의 반 인류적 날뛰이다!

지난 11월 13일(금) 밤(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29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대부분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이는 무자비한 폭탄테러 참사가 발생했다. 이른바 이슬람국가라고 하는 IS집단의 소행이라고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몸에 사단의 어머니라는 폭발물을 감고 테러 현장에서 지옥하는 자살폭탄 수범과 총기난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질러졌다. ‘알리는 위대하다’라는 소리를 테러범이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현장 목격담도 나왔다. IS집단은 즉각 자신들의 보복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른 테러와 달리 평화로운 일상의 장소에 무차별 테러가 행해졌다는 데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외신은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 IS가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 자신들에게 폭격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했고 이제 IS는 전 세계로 테러 대상을 확대하여 전쟁을 선포했다고 전한다.

파리 테러 다음날 G20정상회의가 열린 터키에서도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한국도 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 관측이다. 지난달 러시아 여객기 224명, 11월 12일 베이루트 쇼핑가 43명, 그리고 프랑스 파리 6곳 테러로 129명 사망... ‘소프트 타겟’ 민간인만 노려... 이슬람 무장 단체... 이슬람 국가(IS)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며

유럽 등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IS의 테러는 전신도 없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만행은 잔혹하고 무자비한 참에서 1,2차 세계대전보다 더 끔찍하다. 세계는 IS가 도발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성경에 보니 말세적 사단의 발악을 예언하여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련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계 6:8) 했다.

이번 파리 자폭테러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두명의 여권이 발견되었고 그 여권은 IS집단의 근거지인 시리아 난민으로 행세하여 그리스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에 다문화권 취업자로 위장한 테러범부가 심히 걱정된다. 우리는 전 세계가 반 인류적 테러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 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무량비 상태다. 사단이 날아다니건만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는 모양이 아니고 무언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 말씀하신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아울러 무자비한 폭탄 테러 사단의 난동 척결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때다.

영적 각성이 시급한 이 백성

“주 여호와와 말씀이 나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하였다. 전 세계는 지금 파리 11.13 테러에 대해 깊이 애도하고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 뒤편만 11.14 반 인간적 참사가 일어나 세계가 마음 아파 고통 당하고 있는 시각에 우리의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경찰 추산으로 6만여 명이 모여 반 국가, 반 정부 시위가 일어나 무려 7시간 동안 국법과 국가 공권력을 유린하는 불법적 노동시위가 일어났다. 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요 1인당 GDP 2만8천 달러에 이르러 선진국 문명에 이르렀지만 국가 부패지수와 이

혼율, 노인 및 청소년 자살률, 국민행복지수 등은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권 점수를 드러내고 있다.

요즘 역사 바로세우기와 동시에 반대를 위한 교계의 1천만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천 번이라도 서명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의 석상에서 국가권이 올바르게 박하지 못하면 국민정신이 흐린 백성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역사가 토인비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분에 의해서다.”라고 했다. 진실로 이 백성이 영적으로 대 각성하여야 한다. 하가 저물기 전에 영적 각성 결산서를 철저히 행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자.

초대시

예강 장성연 // 서예가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역임 / 현대사문학 연구가 / 한국원로서화가 한국대표작가 / 미국 매릴랜드 초대전('98) / 미국 한국대사관 초대전('98) / 문인화 여행 외 13종 서화교본 발행 / 한국민족문화상 수상('06) / 정도 육백년 자랑스런시민상('94) / 기독교문화예술대상('07) / 도전 한국인상 대상 수상 /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국회) / 1998년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우수상 / 1998년 KBS전국위문대회 금상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4대 서울서예가협회 회장 역임

웃음예찬

인간관계 좋은사람 언제봐도 싱글벙글
이런사람 처세방법 뭘등하게 좋은이들
웃어야만 건강있고 웃음없는 건강없네
카네기의 웃음예찬 성공조건 첫째라네

웃음제공 하는자는 유익함이 따라오고
손해볼것 전혀없고 얻는것이 더욱많아
웃음이야 짧디해도 좋은기억 평생가니
웃음없는 부자라면 진짜부자 아니라네

웃어야만 사업할때 만사형통 하게되며
피곤함도 물러가고 실망하자 소망언어
우는자의 위로되며 모든악의 해독제니
그러려니 웃는자가 하나님의 위로받네

돈으로도 살수없고 버릴수도 없는웃음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늘나라 귀한선물
그리스도 소망이란 매일같이 웃고살며
웃음속에 주하나님 섭리담겨 있음이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http://www.wgst.ac.kr

Wgst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1-11 (초당역 2번 출구)
Tel. 031-270-6000 Fax. 031-270-60602016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 월요일 집중수업 |

목회자를 위한 신학 연구 과정

① 신학과 석사과정(Th.M.)

구약, 신약, 조직신학과 윤리,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와 문화, 기독교교육, 성경주해, 원어성경주해, 소그룹목회, 설교와 예배

② 신학과 박사과정(Ph.D./Th.D./D.B.S./D.Miss.)

구약, 신약, 조직신학과 윤리,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와 문화,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성경주해, 성경학

③ 신학과 석박사통합과정(Ph.D./Th.D./D.Miss.)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과 윤리,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와 문화, 기독교상담, 교육목회학

| 화-목 주간, 월-금저녁 전일제 수업 |

목회자 양성과정

① 목회학과 석사과정(M.Div.)

웨신교단 또는 독립교단에서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집중수업/ 화-목(주간), 월-금 저녁전일제수업 |

평신도를 위한 기독교학 과정

① 기독교학과 석사과정

기독교리더십(M.A.), 기독교학(M.A.), 소그룹학(M.A.)

② 기독교교육학과 석사과정(M.A.)

③ 기독교상담학과 석사과정(M.A.)

| 금, 토 집중수업 |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과정

①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M.S.W.)

② 사회문화교육학과 석사과정(M.A.)

평생교육학, 보건미용교육학, 미술치료교육학, 자연치유교육학, 관광경영교육학

③ 사회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D.L.E.)

평생교육학, 보건미용교육학, 미술치료교육학, 자연치유교육학, 사회복지학

- 원서접수: 2015. 11. 2(Mon)~
- 전형안내: 학교홈페이지 참조(http://www.wgst.ac.kr) • 입학문의: 031-270-6015~6

▶ 총장 정인찬 박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실천하는 대학!!

제5차 성경주해 키세미나

- 주제: 시편 이해의 키 (I)
- 일시: 2015. 11. 2(월) 오전 9:30 ~ 오후 5:30
- 장소: 본교 소강당
- 강사: 정인찬, 이성혜, 유창걸, 장성길, 김경식, 김대웅

제2회 소그룹목회 학술세미나

- 일시: 2015. 11. 16(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본교 소강당
- 강사: 정인찬, 이동원, 이문식, 권문상, 송옥, 최상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제4회 실행위원회

일시 2016년 1월 4일(월) 오전 11시(시무예배 및 신년하례)
(12시 점심식사, 13시 실행위원 회의)

장소 총회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02)2675-5181~3

참석 실행위원(정책위원, 총회임원, 지방회장), 각 위원장, 각 국장, 증경지방회장

※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2월 24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등용
총무 목사 김병목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총회본부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5회, 총회목회대학원 제8회, 총회신학대학원 제5회)



2015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6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졸업예배를 위해 기도도 준비하시고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총회본부 5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고** :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대원·신대원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전화: 02) 2677-0692~3, FAX: 02) 711-9958 홈페이지: www.agtc.or.kr

교단공과 신청

출판현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교사용(유치·유년·초등부 합본)
구역예배 공과 : 권당 5,000원
- ② 중·고등부 공과 : 2,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DVD : 10,000원

특징(교회학교 공과)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F a x : 031)223-1793
- ② e-mail : hello-pastor@hanmail.net
- ③ Internet : 교단 홈페이지 '2016년도 공과 신청 안내' 클릭 후 이용
- ④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977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⑤ 신청마감 : 2015년 12월 10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 031)233-2922, 02)2675-5181~3

